



2022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러시아유라시아 권역

## 몽골과 자라는 나

심유경

“몽골이면 말 타고 다녀?,” “7시간 정도 걸리나?”  
몽골여행을 다녀온 후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다.  
21세기에 무슨 질문이냐 싶지만 나도 몽골을 알기  
이전에는 비슷한 생각을 했다(했었다). 푸른 초원과  
하늘을 수놓은 별, 초원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가  
축들, 여행하기 어려운 나라, 이 단어들로만 몽골을  
정의하고 있었다.

2019년 8월, 한국의 한여름에 몽골로 여행을 떠났  
다. 갑작스레 떠난 여행이라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3시간 30분 정도의 비행 후 비행기 창문  
너머를 내려다 봤을 때 초록색의 푸른  
땅과 모래 언덕들이 펼쳐져 있었다.  
‘아, 내가 생각한 몽골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몽골 땅을 밟았다.  
40분 정도 양옆으로 푸른 초원이 펼쳐진  
도로를 달리며 다양한 가축들과 게르 등을  
보았다. 이후 울란바토르 시내로 들어서는  
순간 높은 건물과, 넓은 광장이 펼쳐졌다.  
생각보다 발달된 몽골을 보고 비행기로  
3시간 30분이면 만날 수 있는 몽골인데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생각했다.

첫날, 몽골 유목 민족의 생활을 체험했다. 양털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몽골의 수태차를 마  
셨다. 유목민들은 순식간에 게르를 지었고 양을 요  
리하여 식사를 대접해 주었다. 자연 그대로의 양고  
기는 모양도 투박하고 냄새도 강렬했지만 부드러  
운 식감은 잊을 수 없다. 모르는 이들에게도 즐겁게  
음식을 대접하는 이들의 문화는 정말 따뜻했다. 밥  
을 먹고 주변에 있는 말, 낙타, 야크 등 다양한 동물  
을 가까이서 보고 만졌다.



몽골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말을 탄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의 승마 기술도 다양하고 화려했다. 여행하며 본 몽골은 울란바토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온천, 초원, 사막 등의 경관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3박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몽골의 매력에 빠져들기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울란바토르에서 가까운 지역만 여행하였기 때문에 더 넓은 몽골이 궁금해졌다. 그리하여 몽골학과로 진학하였고 2022년 교환학생으로 다시 몽골에 오게 되었다. 어른이 되어 3년 만에 다시 온 몽골은 눈에 띄게 발전되어 있었다. 변함없는 것은 푸른 하늘, 광활한 초원,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가축들이었다. 여행이

아닌 대학생으로서의 몽골 생활은 몽골을 더 자세히 알게 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택시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손을 길 쪽으로 손을 뻗어 지나다니는 차 중에서 수락하는 분의 차를 타는 방식을 이용했는데, 현재는 'UB CAB'이라는 앱으로도 택시를 탄다. 앱에서 탑승객이 거리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제도 할 수 있다. 가게나 상점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하여 결제한다. 몽골에서도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느꼈다.

학생으로 몽골에서 생활하며 몽골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택시를 타면 한국어로 말을 건네시기도 하고 상점이나 음식점에서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한국어로 알려주는 분들도 계셨다. 한 번은 외국인에게

수수료를 더 받는 마트에 간 적이 있었다.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줄 알고 결제하고 있었는데 뒤에 계신 몽골 분이 갑자기 점원 분과 언쟁을 하셨다. '뭐지?' 하며 지나가는데 몽골 분이 나에게 오더니 외국인이 라고 괜히 수수료 받는 줄 알고 점원과 싸웠다고 지역 마트라 외국 카드에는 수수료가 따로 붙는다고 한국어로 설명해 주셨다. 다른 사람의 일이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챙겨 주시고 도와주시려는 점이 정말 감사했다.



울란바토르 거주자의 70% 정도가 한국어를 알고 있다고 들었는데, 내 주변에는 90% 이상의 분들이 한국어를 하셨다. 타국에서 공부하며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다양한 방면에서의 도움들은 몽골 생활에 큰 힘이 됐다.

가끔 샤워할 때 노란 물이 나오기도 하고 갑작스레 정전이 되기도 하지만 소소한 웃음을 짓게 되는 일이다. 여행에선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면 직접 생활하고 몸으로 겪으며 사람들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다.

몽골의 겨울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한다. 10월이 됐을 때 ‘이 정도면 한국 겨울이랑 비슷한데?’라고 생각했지만 11월이 되자 예상보다 많은 눈이 내렸다.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30도까지 내려가며 경험하지 못한 추위를 만났다. 마스크를 쓰고 밖으로 나가면 속눈썹에 이슬이 얼고 귀가 뜰어질 것만 같았다. 한국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던 바라클라바, 귀마개가 살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꼈다. 경험하지 못한 추위에 2주 동안 기숙사에만 있기도 하고 밖으로 나가보려다 바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런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행복하기도 했다. 몽골에서 생활하며 추위를 핑계로 여유도 부려보고 한국과는 다른 소소한 행복을 많이 느꼈다.

몽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오축에는 양, 소, 말, 낙타, 염소가 있는데 식재료에서도 신기함을 많이 느꼈다. 이곳은 소고기가 과자보다 저렴했다. 과일,

채소 등이 구하기 어렵고 가격이 조금 더 있었지만 대신 소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다만, 바다가 없는 몽골의 특성상 신선한 해산물을 먹을 수 없어 아쉬웠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른 만큼 몽골도 3년 전보다는 많이 올랐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에게 몽골 물가는 다른 국가보다는 부담이 적었다. 몽골 전통 음식인 호쇼르, 초이왕 등은 한화 5,000원이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음식은 오축의 나라답게 고기로 이루어져 있다.

몽골에서 머리카락도 많이 자라 미용실도 방문했다. 학교 기숙사 앞에 미용실이 새로 생겨 가보았는데 미용사님이 손도 엄청 빠르고 정교하셨다. 가격은 10,000투그르크, 한화로 3,900원이었다. 너무 만족스러운 소비였다. 그러나 이날 이후로 한파가 이어져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웃픈 이야기도 있다.

19년의 몽골과 18살의 ‘나’, 22년의 몽골과 성인이 된 ‘나’는 서로 다르지만 각자 많은 발전을 한 것 같다. 부모님 보호 아래에서 지내던 나는 몽골로 유학을 와 타지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법도 배웠고 무작정 몽골인과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한다. 용기를 가진 나도 성장했고 몽골은 사회적으로 더 발전했다. 몽골이라 하면 초원, 산, 하늘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발전된 몽골을 보여주고 싶다. 여행으로는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몽골 사람들은 참 따뜻하고 다정하다. 직접 현지인과 살을 맞대며 살아가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멀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몽골이지만 자연과 사람들이 어우러진,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몽골을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길 바란다.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